

2018년 11월 14일(수)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 1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 2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 3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 4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 5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446장 주 음성 외에는

- 1 주 음성외에는 참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 2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 3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때 늘 계시옵소서
 - 4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 후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림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11월 15일(목) 기도 담당 : 박익범 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엄재광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85장 다 같 이
 기 도 이현무 집사
 성 경 봉 독 창세기 39:19~23 인 도 자
 찬 양 새벽찬양대
 설 교 『감옥 속에서의 형통』 이상학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446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창세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 일	본 문	제 목
11월 13일(화)	창 39:7~18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11월 14일(수)	창 39:19~23	감옥 속에서의 형통
11월 15일(목)	창 40:1~8	죄수 목회자 요셉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8년 11월 14일(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싱그런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시17:8)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시작하오니 주님 친히 다스려주옵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삶이었지만,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곳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살아간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비록 저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심의 ‘임마누엘’의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할지라도,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새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

새성전에 십자가가 세워짐을 바라보며 다시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의 방해를 주님 친히 막아주옵시고, 추워지는 날씨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지혜와 총명으로 성막을 짓게 하셨듯이, 앞장서 수고하시는 건축위원장과 모든 전문위원들, 그리고 협력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성령을 부어주사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담임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사 허락하신 목회비전을 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루도록 도와주옵시고, 새롭게 세워진 주님의 일꾼들에게 귀한 사명과 열정과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옵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전반을 주님 친히 만지시사, 오직 주께만 속한 “거룩한 나라”, 오직 주님만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